

더 컴퍼니 / 위너스 /

신사옥 마련...수출·신시장 본격 개척



배선기구 전문기업인 위너스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새를 건립한 신사옥 한편에는 '살펴보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개선하자'는 글귀가 써 있다.

기존 배선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메시지만큼 위너스의 성장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말이 또 있을까.

지난 2004년 설립된 위너스는 출혈경쟁이 난무하는 국내 배선기구 시장에서 불과 14년 만에 3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강소업체로 성장했다. 올해 매출 목표도 330억원이다.

사업비 규모가 큰 건설사 프로젝트 영업이 아닌 대형마트 등 할인점과 재래시장 매출, 가구업체 등에 대한 제안영업 등으로 올린 실적에서 의미가 더 크다.

이 업체의 이런 성장에는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위너스를 만들어 준 핵심 요소다. 위너스의 주력제품인 '결로방지 콘센트'나 '팝업 멀티탭', '테이블 콘센트' 등은 기존에는 없었던 품목들이다.

모두 방수와 결로방지, 반자동 작동, DC 무선충전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녹아 있다. 40년 경력의 배선기구 숙련 기술인이자 '이달의 가능한 국민(2015년 11월)'으로 선정된 김창성 대표(사진)의 기술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결합됐다.

회사발전을 위해 땀 흘리는 직원들도 성장의 일등공신들이다.

위너스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휴게공간과 식당, 문화공간 등이 있는 신사옥을 건립한 것도 이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 위너스는 경기도 포천에 있었지만 직원 대부분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출퇴근했다.

김창성 위너스 대표는 "일각에서는 위

너스가 신사옥을 건립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사옥부지 매각대금과 자체자금 등을 활용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너스는 신사옥 마련과 함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배선기구 시장상황을 고려해 위너스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수출과 신시장 개척이다.

해외수출과 관련해 김 대표는 "경기도 포천 사옥에 있을 때 해외바이어가 와서

생산·출하 동선을 고려한 작업장 설계로 생산·출하 효율을 배가했다.

또 위너스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택용분전반과 IoT스위치 분야를 나점하고, 제품 출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주택용분전반 시장은 그동안 안 디자인, 기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경쟁에만 몰두하는 분야였다"면서 "그러나 신발장 안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됐던 주택용분전반이 올해부터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제 주택용분전반도

자동화라인 구축, 생산·출하 동선 고려한 설계...효율 배가 주택용분전반 시장 진출, IoT스위치 출시해 차별화 도모



위너스가 이번에 새롭게 건립한 경기도 남양주 신사옥.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그 바이어는 공장규모를 보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출이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그때 수출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신뢰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누구에게든 '위너스에 맡기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이번 신사옥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4월 시작해 2년의 공사기간이 걸린 신사옥은 총 부지면적 2만 4420㎡, 총 건축면적 1만㎡, 기계보호시설 외 면적 4000㎡ 규모다.

스위치·콘센트 자동화라인을 구축해 생산과 판매를 2배 이상 끌어올렸고, 자재·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위너스는 제품 디자인을 끝내고,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택용분전반 시장에 대비해 주택용차단기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위너스가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IoT스위치는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와이파이가 통하는 지역이면 어디서나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융합제품으로, 이 제품을 토대로 B2C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위너스는 밝혔다. 위너스는 2020년 매출 500억원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일 기자 yunji@

현대차그룹, 휠체어 전동화키트 세어링 사업 'Good'

출발 5개월 동안 124명 이용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린라이트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세어링 사업이 출발 이후 5개월 만에 124명(국내 100명, 해외 24명)에게 이동편의의 수단을 1000일 동안 제공했다고 전했다.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세어링은 지난 6월 출범한 이동 편의의 지원 사업이다. 일상에서는 수·전동휠체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여행, 출장, 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느끼고 있는 수·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동휠체어에 전동화키트를 장착해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동수단은 '스마트드라이브', '토도드라이브', '스마트드라이브+활동형휠체어'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스마트드라이브는 사용자의 기존 휠체어에 스마트드라이브를 부착해 밴드로 전동조작이 가능한 단독형 A타입과 스마트드라이브와 함께 활동형 휠체어까지 대여 가능한 B타입으로 나뉜다.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조이스틱과 모터, 컴퓨터보드, 배터리를 장착해 전동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토도드라이브(T타입)가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신청자의 장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사무소 방문대여 모두 가능하다. 이근우 기자 igu909@



그린라이트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세어링을 신청한 고객이 스마트드라이브를 통해 뉴욕여행을 다녀왔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결정...실효성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기부의 의무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완료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요청이 17건, 미고발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됐다.

위반관련 법령별 의무고발 현황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13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4건을 고발요청했으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는 전무했다.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교 기자

신개념 공간분할 오디오 솔루션 출시

〈소닉서프VR〉

소니코리아

테마파크·이벤트·전시회 박물관·수족관서 활용도 ↑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는 새로운 몰입형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는 신개념공간분할 오디오 솔루션 '소닉서프VR(Sonic Surf VR)'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닉서프 VR'은 소니가 개발한 음장합성 기술(Sound Field Synthesis)과 스피커, 제어 장치 및 소니 고유의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업계 최초의 패키지 솔루션이다.

소니의 독창적인 오디오 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멀티채널 스피커와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결합돼 가상의 음향 환경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간 내에서 원하는 곳에 소리를 배치하거나 소리가 이동하는 효과, 공간을 임의로 나눠 서로 다른 소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오디오를 디자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VR 경험을 뛰어넘어 청각적 VR까지 더해진 차원이 다른 몰입형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운드, 프로젝션 시스템, 조명 등과 결합해 역동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소니코리아는 이 같은 특징에 따라 소닉서프VR이 테마파크, 특별 이벤트, 전시회, 박물관, 수족관 및 기업 쇼룸 등 위치 기반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 곳에서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공간 오디오 솔루션은 몰입형 체험을 향상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시각적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VR기술과 달리, 소닉서프VR 솔루션은 강력한 청각적 VR 경험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의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소닉서프VR 솔루션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기자 camp@



소니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는 11일 신개념 공간분할 오디오 솔루션 '소닉서프VR(Sonic Surf VR)'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8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국표원, 권영빈 교수 홍조근정훈장
임승욱·최준영 연구원 산업포장 수상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8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화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지문 영상 국제표준 제정 등 생체인식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벌여 우리나라 전자지문 제작과 보급을 주도한 권영빈 중앙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한 임승욱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이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유공자 31명과 13개 유공단체에 정부포상이 주어졌다.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도가 높

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06 어워드'도 함께 열린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양인석 팀장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민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이 '공유'와 '초연결'을 촉진한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종대 문승민 교수는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서비스로봇이 이미지한비를 소개하고 로봇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업무 경험을 공유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지난 산업혁명에서도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이 기술 혁신과 기술 간 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우리 사회의 혁신 성장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학·연이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교 기자 kimsck@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11일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상진 표준협회장 등 표준 관련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국제표준'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부 국감서

전동휠·세그웨이 등 단속자제 요청

앞으로 한강공원이나 광장에서 개인용 이동수단(떠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은 행정안전부 국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60%가 공원과 광장에서 이용하고 있고 대중화

됐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불법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만큼 법 개정까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판교현장 방문시 관련 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